

金·金·金... 불멸의 '신궁 코리아'



26일 도쿄올림픽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우승한 김제덕(왼쪽부터), 김우진, 오진혁이 일본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 유도 안창림 동메달 오늘 수영 황선우·사격 진중오·추가은 메달 도전

대한민국 남자 양궁 대표팀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이로써 한국은 지금까지 치러진 혼성단체전, 여자단체전, 남자단체전 등 도쿄올림픽 양궁 종목 3개 금메달을 다 가져왔다. 당장 신에 김제덕(경북 일고)은 안산(광주여대)에 이어 올림픽 2관왕에 올랐다. <관련기사 18, 19, 20면> 오진혁(현대제철), 김우진(정주시청), 김제덕이 나선 남자 양궁 대표팀은 26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남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잉여우정, 당즈준, 웨이준형으로 팀을 꾸린 대만에 6-0(59-55 60-58 56-55)으로 이겼다.

한국은 1988년 서울 대회에서 단체전이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이 종목 금메달 9개 중 6개를 휩쓸었다. 남자 양궁은 비교적 각 나라 기량이 평준화해 한국 남자 대표팀은 여자 대표팀보다 올림픽 무대에서 어려운 경쟁을 해왔다. 혼성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에 이어 남자 단체전까지 3개의 금메달을 챙긴 한국 양궁은 남녀 개인전 금메달 2개까지 거머쥐면 2개 대회 연속 전 종목 석권의 위업을 달성한다. 올림픽 정상을 한 번씩은 정복한 베테랑으로 구성된 이번 남자 태극궁사들은 고비 때마다 유감 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오진혁은 2012년 런던 대회 개인전을, 김우진은 2016년 리우 대회 단체전을 휩쓸 바 있다.

한국은 준결승전에서 일본과 4-4(58-54 54-55 58-55 53-56)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슛오프까지 가는 실업을 승부 끝에 웃었다. 한국과 일본은 이어진 슛오프에서 28-28로 점수로 또다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김제덕이 과녁 중심부에 가장 가깝게 화살을 쏘으면서 한국이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제덕의 10점은 중심에서 3.3cm, 가와타의 화살은 5.7cm 떨어져 있었다. 2.4cm가 한일전 승부를 갈랐다. 재일동포 3세인 유도 대표팀 안창림(KH그룹 필룩스)은 일본 유도의 성지인 일본 무도관에 태극기를 띄웠다. 안창림은 이날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유도 남자 73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루스탐 오루조프(아제르바이잔)를 상대로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뒀다. '한국 수영의 새 희망' 황선우(서울체고)는 이날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 경영 선수로는 9년 만의 결승 진출을 이뤘다.

황선우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아쿠아티크 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에서 1분45초53의 기록으로 2조 5위, 전체 16명의 선수 중 6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황선우는 27일 오전 10시 43분 8명이 겨루는 결승에 나서서 메달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올림픽 경영 종목 결승 진출은 한국 선수로는 2012년 런던 대회 박태환 이후 9년 만이다. 한편, '사격 황제' 진중오(42)가 역대 한국인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 신기록 수립에 제도전한다. 진중오는 27일 추가은(20)과 짝을 이뤄 일본 도쿄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10m 공기관총 혼성 단체전에 출전한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남녀 궁사들은 혼성단체전, 단체전을 마치고 이날 개인전 레이스를 시작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35°C

광주·전남 날마다 폭염 피해 없게 철저 대비를

광주·전남 지역에 18일째 폭염 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폭염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와 화순 등 전남 11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고, 목포와 여수 등 7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를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주의보는 33도가 이를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된다. 광주와 전남에서 폭염 특보는 지난 9일부터 주의보와 경보를 오가며 18일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 일부지역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이날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27일은 낮 최고기온 35도, 28일은 34도로 덥겠다"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도시와 해안지역에서는 열대야(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폭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전국 '귀농·귀어 1번지'

지난해 귀농가구 수 1위
7년 연속 1위였던 경북 추월
귀어가구 수는 3년 연속 1위

지난해 귀농과 귀어를 위해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은 전남이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해 처음 귀농가구 수 1위를 꿰찼고, 귀어가구는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인 현황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귀농가구는 2374가구로, 전년(2014가구)보다 16.5%(333가구) 증가했다. 전남 귀농가구는 전체(1만2489가구)의 18.8%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관련 통계를 낸 지난 2013년부터 7년 연속 귀농가구 1위는 경북이었다. 지난해에는 전남이 경북과 113가구 격차를 내면서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전남 귀농가구당 평균 가구원은 1.32명

으로 집계됐다. 귀농가구원 3108명 가운데 농사를 짓는 귀농인은 2358명이었고, 가구원 750명을 동반했다. 고흥과 화순은 전국 139개 시·군 가운데 귀농인 수 3-4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귀농인 상위 5개 지역은 경북 의성군(212명), 상주시(181명), 고흥군(180명), 화순군(172명), 전북 임실군(161명) 순이다. 전남 귀농인(2358명)에 대한 성비 비율은 남성 65.1%와 여성 34.9%로 남자가 배 가까이 많았다.

귀농 가구의 78.4%인 1841가구가 1인 가구였다. 작물별로 보면 39.1%가 채소, 36.8%가 논벼, 24.7%가 과수를 재배했다. 전남에 바다 농사를 짓기 위해 귀어난 가구 수는 302가구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전년 358가구와 비교하면 15.6%(-56가구) 줄었다. 80.1%가 1인 가구로, 가족 없이 '나 홀로 귀어'했다. 귀어진 중남자의 비율이 70.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귀어진 규모가 높은 시·군은 충남 태안군(161명), 신안군(75명), 인천 용진군(75명), 충남 보령시(69명), 전북 부안군(59명) 등이다. 귀어진을 연령대로 보면 50대와 60대가 34.5%와 28.2%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사나이 김홍빈 히말리아의 별이 되다 ▶2면



거리응원 대신 거리두기 응원 ▶6면



굿모닝 예향 - 제주 빛의 벵커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촘촘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렉스스토퍼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링룸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렉스스토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